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Myung Bo Um, Publis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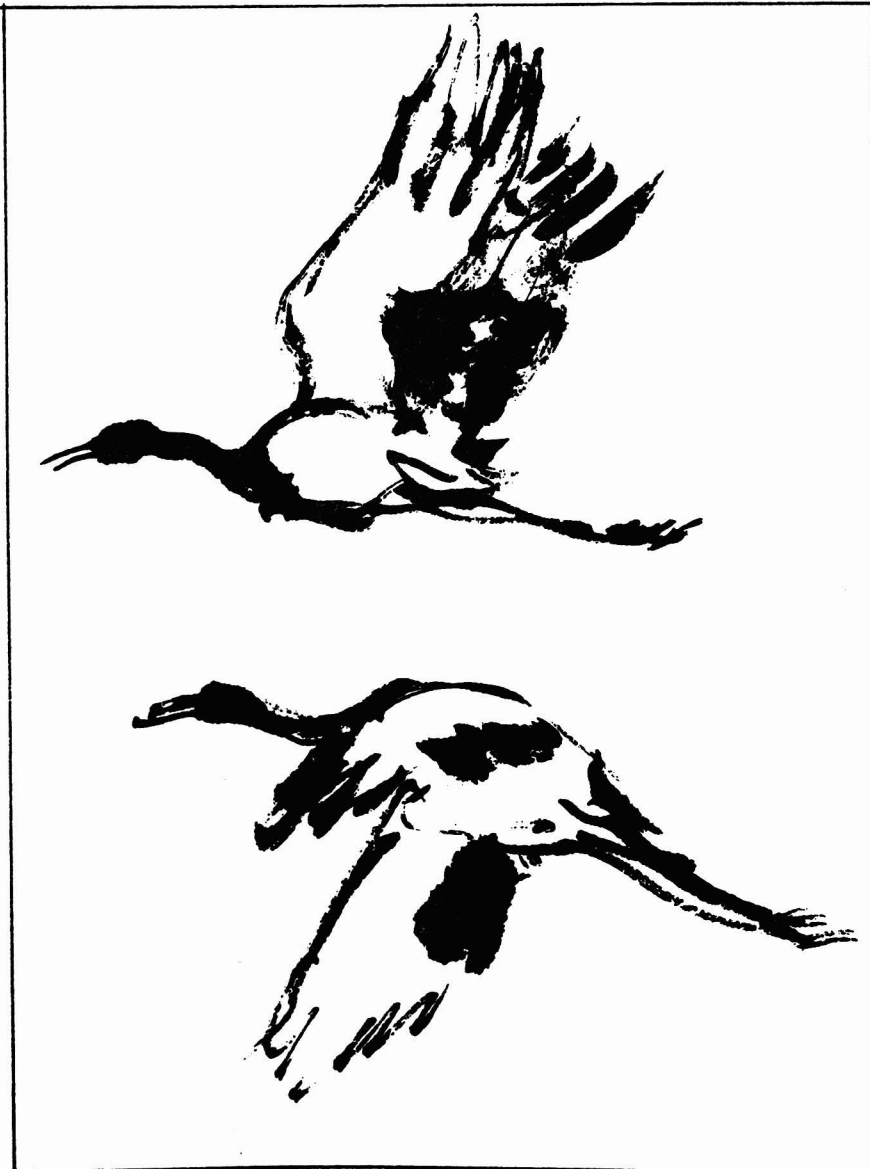
Yong M. Park, Editor

Phone: (206) 682-4252

# 한인회보

## • 목 차 •

- ... 권 두 언
- ... 3·1절 기념사  
총영사 취임인사  
호소문
- ... 한인회 소식
- ... 공지사항
- ... 생활정보 및 교양
- ... 한인회 논단
- ... 한인회 문단



# 韓 日 閣

## HANIL KOREAN RESTAURANT



### BUSINESS HOURS

DINING 11:30 AM — 10:00 PM  
BAR Open until 2:00 AM

1st Fl. Bush Hotel 409 Maynard Ave. S. 587-0464/5

고객 여러분이 상원으로  
The Seattle Times로부터  
객치받으신 일각은  
연중무휴로 드림과 같은  
SERVICE 본고객을 모시겠  
읍니다.

1. 20년 경력을 쌓은  
새로운 주방장의  
요리 솜씨
1. 대소인한 식음비  
(20명부터 200명까지)
1. 점심 특별 메뉴
1. 고객인디치호의 실  
제공
1. 한일극 BAND의 음악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의  
시교장.

권 두 언 :

언젠가 나는, 젊었을 때 몸서리 나는 비극을 겪었던 한부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부인은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한지 24시간도 채 못되어 남편과 여섯살난 아들을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때 눈물도 안 나왔지요."

그 부인은 당시를 회상했다. "마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 갓난 아기조차 돌보기 싫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교회에 간격도,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게 미웠고 무언가를 미워해야 했어요. 그래서 허공에 대고 소리죽여 외쳤지요. "미워! 미워! 살기 싫어! 이대로 죽어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한동안 소리치고 나니 알카 눈물이 쏟아 지더군요. 그리고 어느덧 "미워!" 하는 말이 "제발!"로 바뀌고 "제발"이 "도와주세요"로 바뀐 것을 알았어요.

이 젊은 부인의 입에서 기도가 새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기도 라는 것은 우리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외침이자 우리의 삶을 보람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힘을 달라는 호소이다. 생의 의미와 내가 가야 하는 곳을 찾을 때 부러는 하루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남은 차츰차츰 철이 들어서일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스스로 없이 찾아 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이 있음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서일까? 어느듯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이 영원히 젊 장소를 가져야 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재촉질하는 듯 싶구나



慶

삼일절

제 63회 삼일절 기념 행사

祝

● 한미수교100주년기념행사 ●

한미수교100주년을 맞이하여 한인회에서는 범교포적인 행사로 승화 시키기 위하여 한·미국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차례의 회합을 가졌으며, 아래와 같이 행사 내용을 정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많은 교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일시: 1982년 5월 22일(예정)  
장소: U·W Hub Hall

행사내용

1. 교민예술제: 시애틀거주 교포들로 구성된 예술인의 재능을 미국사회에 과시하는 내용.

- 가. 음악회: 독창, 4중창 및 합창.
- 나. 고전무용: 어린이 및 일반특기자.
- 다. 태권도 시범: 태권도장의 협조로 시범경기.
- 라. 판소리: 학생 및 일반특기자.
- 마. 고전악기: 거문고 및 가야금.
- 바. 서예및동양화시범: 특기자(막간이용).
- 사. 제기차기시범: 특기자(막간이용).

2. 백일장: 한·미수교100주년기념을 위한 내용.  
가. 참가자격: 시애틀 및 인근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 및 일반인.

나. 참가내용: 시, 산문, 그림.  
다. 장소: 주후발포함.

위의 행사에 관계되는 특기자 및 참가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1982년 4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시애틀-와싱턴주한인회  
전화: 682-4252

시애틀-와싱턴주한인회

3·1·절 기념사

오늘 제 63회 3·1·절을 맞이하여 고향 여러분에게 기념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정의 부패와 당파 싸움만 일삼던 조선조의 말기에 이상 송 배의 나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보호라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정치상으로나 군사상으로나 우리나라 정계에 독무대 독재관이 군림하여 식민통치 수완을 총횡무진하게 발휘 하면서, 강제로 창씨 개명을 꺾하고,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았으며, 무고한자들을 학살, 투옥 시키며, 갖은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무릇 정치는 역사를 떠나서 논평할수 없고, 역사는 정치를 떠나서 설명하기 어렵다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정치요, 정치는 현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이 조선에 대해 취한 정치사를 보면 3기로 나누어 논평할수 있으며, 제 1기는 1905년 11월 17일 발표된 보호조약으로 한국외교의 대표권을 얻은 즉 보호정치요, 제 2기는 수만의 군대를 한반도에 투입하고 1910년 8월 29일에 동양평화와 조선민족의 행복이라는 명목하에 병합의 만행을 단행하여 헌병정치 즉 무단시대가 이었고, 제 3기는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 사건으로 문무겸용의 정책을 쓰며, 통치하려 했으므로 회색정치 즉 변민시대 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모두 합심하고, 이끌고 밀어주어 부강한 나라, 영광된 조국으로 건설하도록 우리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사색당쟁의 못된 버릇을 미국에까지 지니고 와서  
 외국인 앞에서 자랑삼아 추태를 연출하는 사례가 근래에 와서, 더욱  
 나타나고 있는것을 볼때, 교포여러분과 더불어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고하게 시기하고, 남을 모함하고, 거짓이 진실로, 모순  
 이 정상으로 통하는 풍조가 언제부터인지 우리교포사회에도 만연되고  
 있는데 대해, 본인은 또한 염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자라고 있는  
 우리들 2세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모두 깊이 반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평균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하고, 무관심하게 자아를  
 방치 한채, 사회와 시대의 고정화된 패턴에 열심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우리인간은 자신의 정서상태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마음의 동요없이 냉정하게 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동요는 자신에 대한 우울감이나 열등감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며,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성격, 용모 등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서도  
 우러나오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인간이란 원래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상호관계를  
 맺게하고, 인격의 고귀함과 존엄함을 사랑하게 될것입니다. 요즈음 현대인  
 들은 겉을 먹고, 일종의 피해 망상증에 물들어 있으며, 과잉방어 본능으로서  
 체면치레와 굳건한 자기 합리화의 틀속에서 무사 안일주의에 푹 젖어 있는것  
 같으며, 양심과 용기 없는 삶은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은폐성으로 부터 냉철하게 반성하고, 자신과 시대를 정면으로 바라  
 볼수 있는 용기와 양심을 가질때 가능 존재로서의 인간이 될수 있으며, 올바른  
 가치를 판단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인간은 자기 삶을 풍부하고, 보람있게 보낼수 있으며  
 끝없는 초월의 과정이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일수록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며, 무슨일을 할때는 남을 밀어  
 주고, 자신은 일꾼쪽을 택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 되어서, 우리문화, 우리  
 사회, 우리동족을 아끼며, 서로돕고, 바로 이해하는 명량한 교포사회가 되  
 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기념사에 대 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씨애틀 - 워싱턴주 한인회장 엄 명 보

## ● 총영사취임사 ●

찬애하는 교민 여러분,

오늘 이 전충있는 시애틀 한인회보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올리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작년 11월초 미국에 온후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관할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광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땅이 구석구석 잘 개발되고  
 보존되고 있음을 보고 실로 감탄을 금치못 하였습니다.

200년의 짧은 세월동안에 세계각국으로부터 신천지를 찾아온 미국의  
 선조들이 20세기의 가장 부강하며, 세계의 국가로서 자랑할수 있는  
 미합중국을 건설하는데 불타는 애국심으로 피땀을 흘린결과, 이 자랑  
 스러운 나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더욱 번영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실사이없이 노력하고 국민적 단합을 이룩하고있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영광된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받게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바, 커다란 교훈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영원한것처럼 한 국가도 영원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에게 영원한 국가를 이룩하자는 정열과 노력, 그리고 성실성이 결여될때 진리는 짓밟히고 그 국가는 희망의 길을 걷게되며 그 후손은 조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국호는 양단되어 우리는 우리조상들이 5천년간 지켜 내려오던 국호의 반만을 이어받게되었읍니다만 민주 자유국가로서 통일되고 번영된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정열과 노력, 그리고 성실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내외국민의 사명이라 생각하는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합심노력하고 상호 격려, 협조함으로써 지혜를 합쳐 보다 큰 국가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뿐 아니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하여도 크게 기여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982년 2월 26일

주 시애틀 총영사 이 문 수 배



존경 하는 교포 여러분

82년도 한인회 업무를 책임맡은 회장으로로서, 교포 여러분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회의 운영실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예산 삭감으로 C.E.T.A.자금이 완전히 없어져서 한인회 직원이 한사람도 없으며, 이로인해 교포들과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고, 임원들이 오후 4시 이후에 나와 밤 늦게 까지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직원을 최소 한사람을 채용해야 할 형편이고, 월급, 사무실 운영비, 회보 발간등 한달에 최소 \$2,400.00 이 있어야 운영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회장단으로부터 \$7.85 를 인수받아 그동안 특별 기부금과 임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교포 여러분

우리가 이곳 미국땅에 살고 있는한 한인회가 없어서는 안될 일이고, 교포사회를 대표해서 존립해 있어야만 합니다. 교포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교포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민 오시는 분들의 안내를 위해서 한인회는 필연코 있어야 할줄 압니다. 더욱이 금년은 「한미 수교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교포사회에서도 범교포적인 행사로 미국사회에 과시 해야 하겠읍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행사등을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 합니다. 항상 몇몇 사람들만이 또한 몇몇 업소의 기부를 받아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씨애틀 근교에 약 2,500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1년에 한번 내는 한인회비를 잘 내시지 않는 실정입니다. 회장단 선거때나 회비를 내는 풍조를 없애고, 금년의 한미수교 100주년 행사를 위하여도 각 교포들께서는 자진해서 한인회비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로 인가가 나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시는 회비에 대해서는 연말 보고하시는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서 보고를 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인회비는 결코 강제성이나 의무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인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자진해서 기부하시는 것입니다. 한인회에서는 여러분이 내신 회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가를 상세히 적어서 매월 회보에 발표해 드리고 있어오니, 이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인회에 문의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교포 간담회에 나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소 하오니, 이곳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국인은 일년에 한번 내시는 회비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장 엄명보 드림

회비 : 세대당 \$10 이상

보낼곳 :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 98124

● 한인회 이모저모 ●

● 워싱턴 주지사 한국의날 선포



지난 2월 9일 워싱턴 주지사실에서 엄명보 한인회장, Spellman 주지사, 박부열 총영사대리, 오준걸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이 자리를 함께하여, 1982년을 "한국의 해"로 선포하는 서명을 교환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으며, 각시별로 행사는 다음과 같다.

- 아 래 -

정부기관	선포일자	선 포 내 용
워싱턴주		1982년을 "한국의 해" 82년 5월을 "한미우호의 달"로
라코마시장	2. 2.	1982년을 "한미우호의 해"로
씨애틀시장	2. 9.	82년 5월을 "한미우호의 달"로

● 한인회 이사 명단

이사장	김 현 길
이사	김 문 규
이사	김 태
이사	전 영 환
이사	서 광 선
이사	이 거 락
이사	강 동 언

● 한인회 임원 추가 임명

교육 김 지 속

● OPEN HOUSE 초식

한인회 새이전 사무실에서 지난 2월 20일 Open House 를 실시 하였습니다. 초대회장 고 이창희 선생의 사모님이신, 김간난 여사를 비롯하여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여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실 참관후 가진 다과회에서 한인회 운영 방안 및 제정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한인모두가 스스로 참여 하여야 만이 한인회가 발전할수 있고 한인회의 발전은 곧 지역에서의 한인 의 지위가 격상 (?) 된다는

HABA HABA



INSTANT 5 MINUTE COLOR PASSPORTS

SENIORS  
SCHOOLS  
WEDDINGS  
COPIES  
GROUPS  
ANNIVERSARIES  
SPECIAL EVENTS  
FAMILY PORTRAITS

Quality Processing By Eastman Kodak

475-6226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하 바 하 바 사진관

PHOTO STUDIO

◆ 출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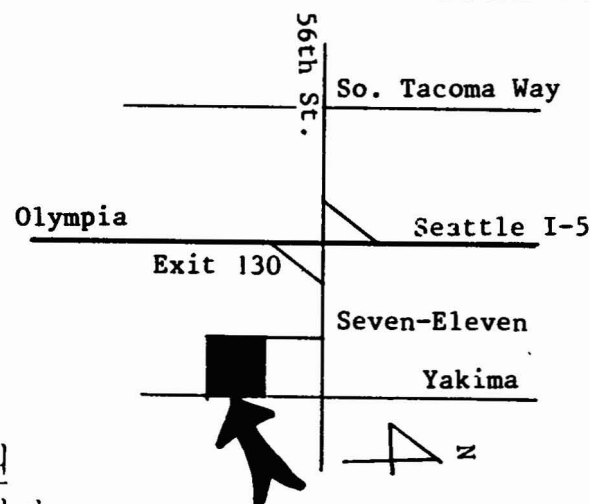
◆ 여권사진

◆ 영주권, 시민권

◆ 가족사진, 단체사진

◆ 결혼, 돌, 회갑

◆ 비데오 촬영



\*\*\* 알 림 \*\*\*

금년 1월 4일부터 새로 발급되는 여권 개신에 필요한 사진 촬영 시작

서류 일절 구비 무료 배부!

이치를 우리모두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  
참석한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던 것 같아  
앞으로 한인회 발전에의 청신호 인 것 같습  
니다.

● 3.1. 절 기념 행사

2월 27일 LAKE CITY SCHOOL 강당  
에서 많은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3.1.절 기념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연로하신 분들이 힘든 노구를  
이끌으시고 자진하여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이들의 솔수수범한 거룩한 행동은  
젊은 우리들에게 그 무엇을 깨닫게 하여  
준듯 하여 콧잔등이 시큰함을 느꼈다.

● 1월중 교포 간담회 내용

시내 다운타운 부식호텔 회의실에서 1월  
교포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날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 마쳤으며, 한인회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  
들을 교환 하였습니다.

행사 내용 : 한인회 이사진 및 임원진 소개  
(82년도)  
한인회 재정보고  
82년도 운영방안 및 세부사업  
계획설명  
년중 행사 보고  
한미 수교 1백주년 기념행사보고  
다과회

끝으로 이날 참석하신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한인회 발전을 위한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정기적으로 교민간담회를 실시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제 5순위의 이민법 폐지 반대 서명운동 전개

본 한인회에서는 미상원에 상정된 제 5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 이민법  
폐지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미국내 거주  
각 한인단체와 호흡을 같이하여 실시키로  
결정. 씨애틀-워싱턴주내 각교회 및 학교  
단체를 통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교민들의 협조를 받아 각 관계기관에 탄원서  
와 함께 서명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특히 각 교회와 타코마 부인회에서 서명운동  
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 열례 임원회의 보고 (2월)

참석자 : 회장 재무  
부회장  
총무 봉사  
체육 편집

일 시 : 2월 6일  
장 소 : 한인회 사무실

2월중 임원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한인회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실천사항  
분담.

공백중인 교육부장 임명 (김 지속)  
한인회산하 예술부창설 추진  
(각종 행사시 예술행사주관 부서)  
3.1.절 행사 세부계획 수립  
4월 경노잔치 세부계획 수립  
하계 시민 종합체육대회 개최건 회의  
씨애틀-워싱턴 거주 교민 주소록 작성  
방침 확정

● 조기 축구회 소식



조기축구회는 81년도 후반기 부터 워싱턴주  
축구리그에 가입해 81년도 9조에서 우승하였  
으며, 워싱턴주 성인부는 한조가 12개팀씩  
20개조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82년도 전반기 리그는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경기를 가지며  
이번 리그에서 조기회는 상위 7팀에 속하는  
4조에 속해 매주 토요일 경기를 가져 왔습니다  
조기회에서는 씨애틀-워싱턴주 거주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참석하실수 있고 취미생활  
도 되고 건강에 좋으므로 많은 분들의 참석을  
권하고 있습니다.

(조기회 연락처 : 전화 243 - 9103)  
조기축구회 회장 김길량

참고로 3월달 대전표

날자	시작시간	상대팀	장 소
3/6	11:15 AM	Club Allegre/ Genesee: 46th So. & S. Genesee, Seattle	
3/13	2:45 PM	L. V. R. / Wash. PK: Lake Wash. Blvd. & E. Madison, Seattle	
3/20	11:15 AM	LI.FO/ Genesee: 46th So. & S. Genesee, Seattle	

● 봉사부 활동 (경노 잔치)

봉사부에서는 이국에서의 바쁜 생활가운데  
에서 망각하거나 외면 해버리기 쉬운 우리  
들의 미풍양속중에 경노사상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적은규모  
이나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잠시나마  
이국에서의 외로움을 덜어 드리고자 행사  
를 준비하느라 동분서주 하는 모양,  
그날 많은 교민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회의

3월 3일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세부사항을 토의코저 미국측 본과 위원과  
한국측 준비위원회가 제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작년 여름 어느 무렵고 습기 많은 일요일. 막 설교가 시작되려는 참인  
데 천장에 달린 선풍기들이 모두 서 버렸다. 우리는 맘에 온통 범벅이  
였는데 신부님은 지옥의 불이며 죄 지은 사람들이 겪게 될 끝없는 형벌  
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는 것이었다. 피로운 설교가 끝나자 바  
로 그때 선풍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교회를 나서는데 목사(服事) 소년이 제 친구에게 하는 말이 들려 왔다.  
"신부님이 날더러 선풍기를 끄라고 하셨단 말야. 그래야 지옥에 대한 설  
교말씀이 더 실감난다고 하면서."  
-인도 D.D.L.

비서양이 동료 비서에게: "그 능률전문가가 요새 날 부쩍 더 유심히 살  
핀단 말야.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지, 아니면 그에게 관심이 있는 처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  
-L.

항상 용감하게 걸어붙이고 정원을 가꾸는 우리 집 사람, 정원에서 일하  
다가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포도나무에 커다란 밤색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일을 열심히 잡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질겁했다. 아내는 당장 능  
업진공국에 전화를 걸어 그 벌레를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곳 대답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분무기로 살충제 정  
도 부러 갖고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군요. 생물학적 제거 방법을 쓰  
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요?" "그 벌레들을 집어내서 발로  
밟아 죽이는거죠."  
-R.R.F.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아나, 여보. 세탁기 사용법을 배우고 싶지  
않아. 짐시 타는 기계를 배운 것만 해도 지금 후회막급인 걸."  
-A.M.

● 한인회 새 영문 한글 겸용 타자기 구입

본 한인회의 숙원인 새타자기 구입이 씨애틀 총영사관의 특별한 배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만여 교민을 대표하여 항상 교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영사관 측에 감사드립니다.

내용 : 영문, 한글 겸용 타자기 1대 (\$1,200--)  
 씨애틀 총영사관 보조 \$600--  
 한인회 자체부담 \$600--

● 씨애틀 한국학교 설립 위원회 추진

3만여 교민의 숙원사업인 한국학교 설립건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엄 명보 현 한인회장 및 전임 회장단 및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유치원, 국민학교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중등, 고등 과정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설립위원회가 발족되면 곧 시행될 밝은 전망이 보이며, 아울러 교사진은 워싱턴주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김지속 선생을 비롯하여 우수한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1일부터 개강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씨애틀-워싱턴주 거주 한인 교회 담임목사님들과의 간담회

교민의 유대강화 및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엄 명보 한인회장은 각교회 담임목사님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교민사회 발전과 한인회 운영문제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Aurora 165th 에 위치한 "로알록" 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내용 : 한인사회의 발전문제  
 한인회 운영문제 (재정문제)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행사 준비사항

특히 이 자리에서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행사를 범교포적인 행사로 실시키 위하여 각교회별로 적극 협조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엄 명보 한인회장

Asian-Police Community Relations 회의참석

2월 16일 엄 명보 한인회장은 씨애틀 시장실에서 씨애틀 거주 아시안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특히 이날 씨애틀 시당국은 아시안 거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요망하였으며, 각단체에서의 특별한 교통법규 교육을 강조 하였습니다.

토막 뉴스

● 워싱턴주 해병동지회 현판식

2월1일 Burien 에 있는 워싱턴주 해병동지회 사무실에서 구수암 동지회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관계기관장 및 역전의 용사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해병대 동지회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라는 구호가 실감있게 이국에서의 따뜻한 동지애를 발휘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며, 이날, 박 부열 총영사 대리도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 화분 증정 소식

워싱턴주 평신도 회장 김 병섭 장로께서 본 한인회 사무실 이전축하 및 격려차 2월 5일 직접 방문하셔서 화분을 증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 사무실 이전 축하 화분 증정

씨애틀-워싱턴주 이화여자 대학 동창회 (회장 오 화실 여사) 와 씨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국관식당에서 축하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로 국위를 선양하는 윤 학덕 관장이 라코마 에 이어 린우드 ( Lynnwood ) 에 새로히 태권도 도장을 개관하여 교포들의 자량이 되고 있습니다.

● 신임 이문수 총영사 취임

지난 2월 26일 동부 Boston 총영사관에 근무하시던 이문수 총영사께서 이날 씨애틀 총영사관에 정식 취임 하였습니다.

신임 총영사께서 앞으로 이지역 교민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교회 3·1·절 특별 기념 연합 예배

워싱턴주 평신도회 (회장 김 병섭 장로) 의 주최로 지난 2월 28일 3·1·절 기념 연합 예배 및 조국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현지 탐방

● 엄 명보 회장 교회 방문

교포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중심이 되는 각교회 담임목사님들과 교인들과의 대화 및 폭넓은 의견을 청취코자 엄 명보 회장이 씨애틀-워싱턴 거주 각교회를 방문 예배참석

● 방문교회

- 씨애틀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상구)
- 한인 연합감리교회 ( " 김 종연)
- 형제 교회 ( " 최 용걸)
- 한인 연합장로교회 ( " 박 영희)
- 한인 중앙장로교회 ( " 정 연발)
- 웨슬리언 선교교회 ( " 송 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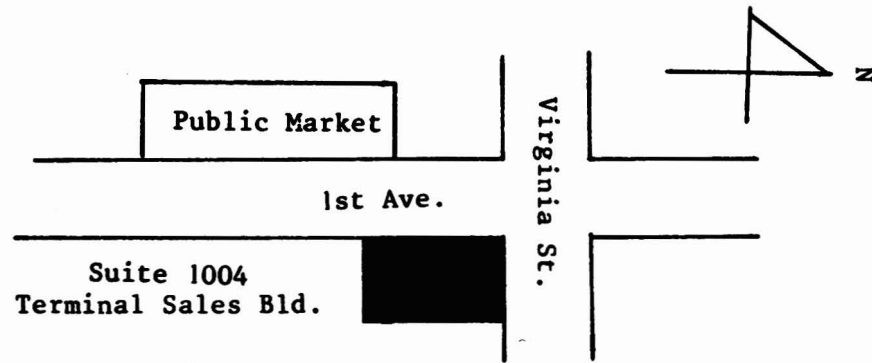
아직 방문 하지 못한 교회 에도 계속 해서 방문 할 예정입니다.

● 제 2회 고포 간담회 개최 예정 (3월)

제 2회 고포 간담회를 아태와 같이 개최 할 예정이오니,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1982. 3. 20. (토) 오후 6:30  
 장소 : 한인회 사무실  
 주소 : 1932 1st Ave.  
 Terminal Sales Bldg.

전화 : 682 - 4252



● 공지 사항



● 캐나다 방문비자 발급 절차 변경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비 영영주자의 캐나다 관광비자 발급 절차를 즉시 발급하지 않고 방문 2주전에 전화예약 후 면면접 거쳐 비자를 발급 하오니, 방문중인 친지분들의 캐나다 관광을 위한 비자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요망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 전화번호 : (206)223-1372(1377)

● 이민국 신고제 폐지

82년부터 매월 1일 영주권자나 방문자의 이민국 신고제도가 폐지 되었으므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단,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사후 주소 변경시 필히 10일 이전에 이민국에 신고 하셔야만 합니다.

● 구직 안내

매주 워싱턴주 당국에서 본 한인회로 주, 연방 공무원 및 각종 직업에 대한 구인안 내서가 접수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분은 본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82 - 4252

(구인안내서가 마감일정 10일정도 밖에 여유가 없으므로 본지에 게재 할수 없습니다. 직접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알림

● 씨애틀-워싱턴주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임원진 개편)

- 회장 : 오 화 실 (전화 : 455-9571)
- 부회장 : 안 신 자
- 총무 : 조 운 자

새로히 이번오신 동문이나 아직 가입을 못하신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참 하셔서 이국에서의 따뜻한 동문의 정을 나눌수 있도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화 (455 - 9571)  
 주소 510 96th S. E.  
 Bellevue, WA 98004

● 자선 봉사

U. W. 재학생인 노 정석군이 언어의 불편을 겪는 교민들을 위해 자진해서 봉사를 할려고 하니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태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민이나 유학오신 분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때 통역 및 상담 안내

새로 이민오신분들의 자제분들의 학교 진학문제 및 공부과정의 통역 및 상담 안내

매주 목, 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연락 하시면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 682-8712 (노 정석)  
 (전화) 682-4252 (한인회사무)

82년 - 83년 씨애틀-워싱턴주 거주 한인 주소록 제작성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가는 교민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본 한인회에서는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저 씨애틀-워싱턴주 거주 교민들의 주소록을 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아태주소로 직접 각자의 주소를 기재 연락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내실곳)

한인회기금 현황

수입지부

회비 ( 경칭 약 )

- 11. 호 용 덕 \$ 50.00
- 12. 주 상 결 \$ 15.00
- 13. 이 용 호 \$ 20.00
- 14. 임 초 기 \$ 20.00
- 15. 오 수 남 \$ 20.00
- 16. 한 부 남 \$ 200.00
- 17. 이 광 술 \$ 20.00
- 18. 한 료 석 \$ 10.00
- 19. 박 영 희 \$ 15.00
- 20. 최 손 자 \$ 10.00
- 21. 경 철 식 \$ 100.00
- 22. 김 동 호 \$ 20.00
- 23. 조 영 \$ 50.00
- 24. 서 근 유 \$ 50.00
- 25. 우 시 흥 \$ 20.00

- 26. 광 상 국 \$ 20.00
- 27. 조 요 한 \$ 50.00
- 28. 주 상 결 \$ 100.00
- 29. 김 해 \$ 20.00
- 30. Paul H. Shin \$ 100.00
- 31. 오 준 결 \$ 50.00
- 32. 이 기 막 \$ 20.00
- 33. 유 태 연 \$ 20.00
- 34. 심 제 철 \$ 10.00
- 35. 이 규 권 \$ 50.00
- 36. 유 제 삼 \$ 15.00
- 37. 정 연 발 \$ 15.00
- 38. 이 창 수 \$ 10.00
- 39. 이 영 준 \$ 15.00
- 40. 김 경 환 \$ 15.00
- 41. 임 광 희 \$ 20.00
- 42. 오 준 모 \$ 15.00
- 43. 원 지 준 \$ 15.00
- 44. 김 관 난 \$ 20.00

2월 합계 \$ 1200.00  
연 누 계 \$ 1900.00

기부금

- 2. Savoy Cafe & Lounge S.f. Secona ( 사보이 식당 ) \$ 100.00
- 3. 서 광 선 \$ 100.00
- 4. 이 영 주 \$ 100.00
- 5. Chaina Gate \$ 100.00
- 6. 최 영 세 \$ 50.00
- 7. Allen Kim \$ 50.00
- 8. 백 용 기 \$ 100.00
- 9. 동 서 여행사 \$ 100.00

2월 합계 \$ 700.00  
연 누 계 \$ 1,700.00

지출 지부

- 간담회 개최 공고료 (1월) \$ 50.00
- 회보 얻고 타자료 (1월) \$ 96.00
- 회보 인쇄비 \$ 1,000.00
- 회보 발송용 라벨대금 \$ 60.00
- 회보 발송 우편료 (별과) \$ 25.61
- 사무용품 인쇄비 \$ 230.32
- 사무용품비 \$ 13.32
- 우 표 대 \$ 20.00
- 3종 Bulk Mail Fee ( '82년도분 ) \$ 40.00
- 주요 기관 화본 증정대 \$ 19.99
- 한인 업소 개관 기념품대 \$ 32.49
- 타코마 한인회 찬조금 \$ 100.00

- 3.1절 기념 행사장소 임차료 \$ 20.00
- Rainier Bank 1월 Service Charge \$ 4.93
- 사무실 오픈 하우스음식대 \$ 47.23
- 1월분 금액 착정 \$ 0.03
- 씨애틀 지역 교회목사님 간담회 식대 \$ 58.50
- 1월분 사무실 전화 사용료 및 이전료 \$ 106.87
- 3월분 사무실 임차료 \$ 175.00
- 3.1절 기념행사 준비 물품대 \$ 30.54

사무실용 볼루인쇄, 제조비 ( 초·중·대

3700매 ) \$ 230.00  
2월 합계 \$ 2394.83  
연 누 계 \$ 3232.97

1981년도 이월금 \$ 7.85  
1월분 잔액 이월금 \$ 861.86  
2월중 수입액 \$ 1865.00  
2월분 지출액 \$ 2359.83  
2월말 현재 잔액 \$ 409.88

1982년도 총 누 계 (1월 16일 - 2월 26일)

총 수 입 \$ 3,607.85  
총 지 출 \$ 3,232.97  
잔 액 \$ 409.88



**EAST-WEST TRAVEL SERVICE**

IATA-ATC 공인

**동 서 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밤  
367-1935 밤

SECURITIES BLDG., SUITE 635  
1904 3rd AVENUE  
SEATTLE, WA 98101



대표 이 영 호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매입을 전화로 하시면 비행기표를 귀댁으로 전해드리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 영 업 안 내 —

-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무료 서비스
-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공증업무 무료 서비스




## 최 영 세 생명보험

- 전미국 3대 보험회사
- 최우수 배당금 실적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건강보험,
- 주택보험,
- 상업보험

1. 장기적금과 생명보험과 퇴직금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축성 **생명보험**

2. 값도 싸고 혜택과 서비스가 좋은 **자동차보험**

○ 사고, 티켓, 초보운전자, 보험료에 불만있는 분.  
○ 40세 이상 운전기록 좋은 분 dis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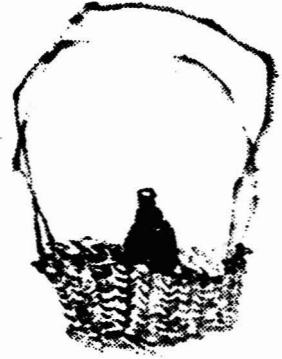


집 365-0085 사무실 624-8380

**이퀴러블 생명보험 상호회사**

THE 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의학 상식

빈혈(貧血)로 일어나는 질환

동서 한의원

한의학 박사 윤성 희 글

인체의 생리는 전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개의 세포라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이 심장을 통과 하며 어느곳이고 감각이 없는 곳이 없고 또 위에들어가는 음식물로 전신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인체의 생리는 장유수와 같이 위가 흐르면 아래도 흐르고 위가 막으면 아래도 막는다.

즉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전신이 건강하고 간혹 병변이 생겨도 즉시 치유되며 오장육부가 병들면 전신이 비록 건강하나 오래 되지않아 병이 든다. 질병이 걸리게 되는 체질을 한방에서는 보존성, 쇠약성, 폐혈성 등으로 구분하고 병의 침입을 실증과 허증으로 구분한다. 이번 기회에는 쇠약성의 허증(貧血 빈혈)을 논 하겠다. 임상면에서 이외로 빈혈

환자(즉 허증)가 많음을 보아왔다. 안 았다 일어나면 정신이 아찔해지고 눈앞이 캄캄해 지면서 별같은 것이 보인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현기증도 나타난다는한다. 이럴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기를 피가 부족하다거나 영양실조에 걸렸다 하면서 영양식을 권하는 것을 보는데 이 경우 식이 요법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안될경우도 있다.

출혈성의 원인은 많겠지만 각종의 암이나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장결핵, 치질, 자궁근종, 월경과다, 신장성 혈뇨, 유산수술을 자주했을 경우들을 열거할수 있다. 때문에 출혈성일때는 그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식사의 요법으로는 극복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철성분이 많은 동물의 간류나 시금치 당근 굴 등 즉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들을 많이 섭취하면 좋은것은 말할것도 없다. 한편 한의학적인 견지에서는 기(氣)와 혈(血)의 균형이 맞지 않았을때 빈혈이 온다고 보는데 그것을 기허와 혈허의 증세라고한다 그래서 많은 식물성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혈액을 산성에서 알칼리화 시키므로 내부장기 특히 간을 보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파란채소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는 영양학적인 이론도 나올수 있지만 지구상의 거

구인 짐승들(코끼리, 말, 소, 낙타, 사슴)은 식물성만 먹어도 영양실조에 걸리지않고 살아가며 한의학의 약품(생약)들도 거의가 다 식물성이며 시퍼런 염록체는 특히 간을 보호해 주고있음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빈혈은 남자보다 여성에게 많이 볼수 있다. 빈혈로 인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반신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많은 여성들이 허리 아랫와 하복부에 냉증을 호소함을 볼수있고 특히 산후 과다 출혈로 전신의 오른쪽 혹은 왼쪽 등이 저리고 심지어 바람이 몸으로 들어온다고 출혈 하는 여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사람을 허약체질로 피로하기 쉽고 안색이 좋지 않으며 머리가 무겁고 현기증과 월경불순이 많이 오고있다. 이외에도 빈혈과 냉은 여성들의 여러가지 질환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허리가 차가워지면 내부 성기가 총혈하며 자궁내막염과 부속기염 자궁내에서 나오는 병적인 액체(속칭 냉)등이 흐르며 난소기능부전 자궁발육부진으로 불임증이 된다. 그밖에 빈혈과 냉증이 있으면 각종의 신경통 관절류마치스, 방광염, 부흥요통, 두통의 원인이 되므로 초기에 전문의사를찾아 치료해 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수있다. 현대의학에서는 "냉증"을 그리 중요시 않고있으나 한의학에서는 특히 여성들에 있어서 평범히 지내는 경우

가 많으나 상기한바와 같은 여러가지 무서운 질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살기하기바라며 남성들에게도 "냉"증이 없는것이 아니다. 오랜 임상경험에서 본바 양기 부족이다. 조루증이다 운운하는것이다. 빈혈과 냉증에서 오는경우를 많이 보았고 치료효과도 좋았다. 한약으로는 알기쉽게 차가운것을 덮여주는 전신적인 요법과 광범위한 약제가 많음을 말할수 있다.

끝.

포인트



생전 육상에서만 스키를 타다가 생일 선물로 수상스키 한 짝을 받은 어느 친구. 수련이 스키탈 만큼 경사진 호수를 찾아 저금껏 해매고 있다고. -P.M.

● 여권법 시행령 개정 내용

글·편집부

'81년 6월 17일 개정된 여권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여행자유화

'81년 10월 1일부터 모든여권은 유효기간 내에는 몇번이고 사용할수 있도록 전체여권을 복수 여권화 시켰다. 다만 방문여권과 관광여권의 경우엔(1년 2회) 식의 기간및 회수 제한을 두었다. 교포들로서 반가운

사실은 일사귀국 제도가 지난 8월1일을 기해 자동 폐지된 점. 목적지 일괄인정 제도가 8월1일부터 모든 여권에 적용됐다. 여권에 여행국을 기재하는 대신 소련, 중공등 여행허가 대상국을 스탬프로 찍는 이른바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 그 밖의 국가는 자유롭게 여행할수 있게했다. 그러나 이민과 취업은 여행 목적이 종전과 같이 기재된다.

북한은 상식적으로 물론 제외되며 이밖에 허가 대상국 19개국은 다음과 같다.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쿠카, 체코, 동독, 헝가리, 라오스, 몽고, 폴란드, 남예멘, 중공, 루마니아, 사우스아프리카 공화국, 소련, 베트남, 유고. 나이에 상관없이 부부동반 여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른조건은 종전과 같다. 관광목적의 부부동반이 오는 83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제 1단계조치로 관광여행을 할수있다. 그러나 전면자유화는 80년대 중반 외환사정이 허락하는 데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관광여행을 떠나려면 사전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거나 적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 이에치금이나 적금은 보증금의 성격을 가져 여행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한 담보가 된다. '82년 7월1일부터는

친지(아는 사람)도 초청자가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이 가능하다. 친지의 초청으로 방문목적의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관광여행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예치하거나 적금에 가입하여야한다. 자비 부금으로 방문 여행을 할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3등친이내의 혈족또는 인척의 초청이 있어야한다. 제 1국민역으로 1년 이내에 기술 연구 국외 선양에 공헌할수 있는 스포츠, 예능 기타 기예있어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병역에 관계없이 8월 1일부터 해외에 내보내고 있다. 이밖에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병역대상자로 유학하는 경우 20세 이상의 병역대상자로 부모와 동거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해외여행이 허가되고 있다. 8월1일부터 본격적 및 원적지 조치가 폐지되조회기간도 7-13일에서 4-5일로 줄어 들었다.

'83년 1월1일부터는 2단계조치로 신원조회가 전산처리되며 '84년부터는 3단계조치로 신원조회를 여권업무와 분리 출국직전공항이나 항만에서 신원조회를 처리한다 이 경우 (블랙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즉시 신원조회가 떨어져 출국할수 있다 8월1일부터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대기 일자도 10일에서 2일정도 단축했다.

8월1일부터 전국 11개도 시도 (대구, 인천 직할시는 85년 서울의 구청도 85년)에서 발급하며 83년도부터 전산화로 처리 현재 로스엔젤스 워싱턴등 8개 공관에서 취급하던 거주 복수여권이 내년부터 고평수가 많은 상파울로 뉴욕 시 카고 호른호등에 확대 된다. 재외국민이 고국을 방문할때는 입국 3일전에 재외공관의 장에 가입국목적등을 기재한본국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나 8월1일일을 기해 폐지됐다.

또한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특수기술제공사, 무역종사자, 사회사업가, 투자가교수, 종교인, 학생등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재외공관의 사증발급권한을 확대했다.

또 83년말까지 부산, 김해, 제주등 국제항의 출입국업무도 전산화로 처리 1분 이내 출입국절차를 마치도록했다.

(82년중에 대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이밖에 선원수첩으로 상륙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 조업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 대신 여권을 발급 내륙여행이 가능하도록 조치시켜 과거에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청산시키도록했다. 일본단체 관광객과 미국 및 유럽인들을 위해 손가방만 갖고 들어오는 내국인과함께 간이 검사로 통관시키고있다. 82년 3월부터는 일정액

이하의 휴대품은 현행의 품목단위에서 금액단위로 바꿨다. 또한 주무관청인 관세청은 김포세관등에 의전관을 신설에 우대상자의 신속한 통관을 기함으로서 과거의 세관분의기를 일신했다.

끝.

### ● 자동차 사고와 처리

통계에 의하면 차 1대에 사람1.6의 비율로 차의 소유율이 높고 전세계개솔린의 30% 이상을 소비하는 부국에 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할수 있을까. 당연히 사고또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다.

ACOSC (Automobile Club of Southern California) 의 통계에 의하면 연휴의 사망률이 적게는 30-40명 많을 경우에는 60-70명이 라고한다. 한국사람은 운전경험이 적은만큼 사고율도 무척 높은 것이다.

제일위험한것이 최중운전에 기인한것이고 차정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꼭 기억할것은 운전하면서는 절대로 자기주장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것이 운전을 정확히 충분히 배웠다면 어려움이 없을것이나 친구나 가까운 친지에게서 대강배운 경우는 많은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 운전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가능한한운전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배울것을 권장하며 갓 면허를 받았거나 사고 또는 티켓을 많이 받은 분은

운전학교에서 방어운전을 배울것을 권한다. 그러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할까? 첫째, 사고가 난 지점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보존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상대방에게도 움직이지 말것을 요구하라.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본인만이라도 끝까지 경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사고로 인하여 차가 밀리는 경우에는 차의 앞 뚜껑을 열어 놓는다. 이런 경우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차 사고가 민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후 차에서 뛰어나와 왜 우리차를 받았느냐 시비를 가린다거나 혹은 우리가 사고 나서 미안하다고 ( I'm Sorry )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절대 금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증인을 세워 두어야 한다. 차 사고의 80% 이상이 절대적으로 누구 잘못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좌회전하는 차와 곧장 진행하는 차와의 사고 스롭 신호에서나 온 차와의 사고 뒷차가 앞차를 받는 경우 등은 거의 90%가 전자의 잘못으로 쉽게 판단지어 지지만 그외의 경우는 증인의 말에 따라서 잘잘못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나오기 전에 준비할것은 상대방

이 도망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 번호를 적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차가 도망을 간다고 뒤쫓아 가는 것은 자신의 신변을 위해 옳은 일은 못된다. 도망가는 차일수록 운전자가 위험인물일 확율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왔을 때 상대방이 도망갔다고 보고하는 경우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대방 보험회사와 보험증서 번호를 적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셋째, 운전면허를 교환하여 이름, 주소 운전면허 번호를 적어두고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화 번호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그 후의 모든 문제는 보험회사에 보험대리인과 처리 하는 것에 가장 현명하다 하겠다.

**스튜디오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약혼식 꽃
- 실내용화초
- 각종 축하용화분
- 장례식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 전화만주시면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 BUS : 225-5032 RES : 367-1534

**● 강도 및 도난방지 요령**

출입구 통제 시설 갖출것

시설 완비

경찰과 직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할 것 .

이웃 삼점과 연락할수있는 비상벨을 설치할것 ,

출입구를 통제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출것 .

흔려된 사냥개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범인용의자의 식별법

들어오면서 상품에 눈이 가지않고 사람에게만 시선의 초점이 가는 사람.

가격을 이것저것 손서없이 물어오는 사람.

구석진 쪽에 가서 주인을 부르며 가격을 묻는 사람.

색안경을 끼고와서 안경을 벗지 않는 사람.

특히 겨울에 두툼한 복장을 한사람 남녀 같이 들어온 손님도 일단 주의 .

범인에게 HOLD UP (STICK UP) 당했을 경우

손을 들고 범인의 얼굴을 보지말것

다른생각 말고 범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것.

범인에게 무엇이든지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하면서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는 것을 주지 시킬것.

범죄 예방법

주의의 불량배들을 인간적인 면에서 친구가 되게끔 선의를 베푸는 방법. 항상 시선과 몸 움직임을 주시할것. 불안한 예감이 들면 2인중 1인은(남여) 밖에 나가서 안을 감시 할것. 복장을 점검하면서 무기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항상 가게내에서만 있지말고 매 시간 당 밖의 주변동정을 살피고 동시 근처 차량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클로즈할시간 남너를 불문하고 손님을 받지 말것.

퇴근시 돈을 휴대한 사람이 먼저 승차한후 다음사람이 승차한다.

무기소지의 필요성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총기 휴대는 (총이 총을 부른다)는 속담과 같이 절대 금물이다.

위험이 허다하게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할수있다.

남부 지역에서 비지니스하는 외국인은



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처럼 느껴졌었다. 아들을 잃은 괴로움을 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그 친구는, "나는 아이를 가져보지도 못했어"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란 슬픔을 당했을 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되풀이 하는 지 모른다. 그러면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물음에 가장 적합한 대답은 유래인들의 감사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경건한 유래인들은 작은 행복감을 맛볼 때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 잠을 잘자고 나서도 다정한 친구를 만났을 때도 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을 보고도 마음에 상쾌할 때도,

## 2. 고백과 회개의 기도

우리는 마치 호주머니 속의 큰 돌을 넣고 띠여 가듯 무거운 죄를 걸머진 채 살고 있다. 이 무거운 죄책감으로서 해방되려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신의학자들과 성직자들의 의견이다. 죄책감을 모두 털어 놓는 고백의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속이 후련해지는 법이다.

어느 부활절 주일에 나는 목사인 아들을 만나러 갔었다. 그런데 나는 아들이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걸 알았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들은 미소 지으며 나를 껴안고 "네, 몇 가지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빌어야만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 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설교대에 대해 따뜻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했다. 회개의 기도가 발휘하는 또 하나의 힘은 남을 용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잇속만 생각해 왔고 얼마나 우둔했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모두가 잘해 보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되며 그럼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점과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아울러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저지른 일과 우리가 태만했던 일에 대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러한 회개의 기도는 구체적인 사실을 뇌우쳐야 한다 "저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기도 하기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단순

히 자존심 때문에 자를 내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혹은" 오늘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등. 이런 회개는 기도는 새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과 함께 잘못을 범한 동기가 무엇이었던가를 동시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어야 한다.

## 3.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우선 자기심을 떨쳐버리는 훌륭한 방법이 되며 또한 남의 삶을 바꾸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 할머니는 증병으로 입원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얼마나 아픈지 용기를 잃고 필요한 검사마저 안받겠다고 막무간에 우겼다. 그런데 어느날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에서 족지 하나가 전해졌는데 친구들이 할머니를 위해 기도회를 조직했다면서 그날밤 철야 기도를 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기도회가 있던 그날 밤 1시쯤부터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져 들었어요" 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기꺼이 검사를 받았고 그후 꾸준히 회복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특히 우리의적을 울릴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한때 나는 내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자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중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인상적인 괴질이 눈에 띄었다.

"적을 이해하게 되면 적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그리하여 나의 적에게 빛을 주십시오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는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던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또한 나 자신도 그에게 부지불식간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긴 세월을 고생해 온 그 여인의 생활이 앞으로 나아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이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나도 모르게 온데간데 없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남을 위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같이 느끼면서 해박 하는 것이다.

걱정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하라. 그는 지금 무엇을 진정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어렵다고? 물론이다. 해볼만한 가치가 있을까?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해왔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몸에 배면 당신의 삶은 눈에 띄게 그리고 오묘하게 달라진다.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이다.

저명한 어느 의사의 말이다.

## 4. 반성과 명상의 기도

나는 어른이 되어서야 기도라는 게 독백이 아니라 대화하는 사실을 실감했다.

어느날 기차를 놓쳐 낯선 도시에서 여러

시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그도 차를 줄길 기본이 아니었다. 전날 집안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었다. 정처없이 거리를 해매다가 무심코 열려있는 예배당 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곤 잠시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기 보다는 하느님께 통 사정을 했다. "하느님, 제가 할수있는 일은 다 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란 말예요." 사뭇 항의 조로 말했다. 침이 흘렸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지난일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싶어졌으며 불현듯 바로 그날 그 시간으로 되돌아 가고픈 충동이 샘솟았다. 그러나 마치 영화 장면 처럼 그시간이 생생하게 펼쳐 지는 게 아닌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등장인물들이 제각기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 눈앞에 선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편해 지고 울적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집안에 확목을 위해 나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햇빛이 눈부신 바깥으로 걸어 나오면서 나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구나"하고 경탄했다. 실제로 나는 아무 소리도 못들었었는데도. 기도를 흔히 일방통행으로 여기기 쉬운데 이는 참으로 그릇된 생각이다. 우리는 하느님에게 말을 걸면서 하느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미처 들지 않는 모양이다. 물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좋아하는 어떤것을 송두리채 버려야 하거나 때에

따라선 스스로 택한게 아닐지도 모르는 새로운 과업에 착수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반성에 기도를 멀리하게 된다. "나는 하느님에게 지시를 해주십시오 빌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 하실지 두려워서입니다. 한 젊은 목사가 빈민가 교회와 부유한 교외지구 교회 중 어느곳을 택할까 하면서 나에게 들려준 말이였다. 물론 그는 반성과 명상의 기도란때로 인간이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것을 완전히 버리도록 이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자질과 재능 그리고 사랑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케 도와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명상의 기도는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 침묵속에서 손종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되고 들리지 않던것이 들리게된다.

5. 은총을 비는 기도

"은총," 참으로 매력적인 말이다. 보통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나 사전에는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과분한 사랑과 은혜"라고 되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받는것이 바로 이 "은총" 이었고 선장이자 노예상인이었던 존뉴런이 받았던 것도 바로 이 "은총"이다. 존뉴런은 하느님은총을 너무나 뚜렷이 체험한 나머지 다년간의 수업 끝에 목사가 되었고 또한 영감을 얻어 널리 애창되는 그유명한 찬송가 ( 주은혜 놀라와 )

를 작사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같은 은총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먼저 우리의 자신들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그 다음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면된다. 해럴드휴즈 미국 상원의원은 알콜중독으로 자기 인생이 파멸돼 가던 과거를 돌이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당시 나는 완전한 절망상태에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울부짖었더니 바로 그순간부터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을 비는 기도는 감내할수 없는 장애가 닦였을때 이를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비는 기도이며 용서될수 없는죄를 범했을때 공활을 구하는 기도이며 도저히 헤아릴수 없는것을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수 있도록 힘을주십시오 하는 기도이다.

6. 행위 속의 기도

어느 토요일 아침 리 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한무리의 사람들이 교회제단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역시 비슷한 차림의 목사가 소리내어 기도를 올렸다. "저희들의 곡괘이와 삼과 페인트 붓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연장을 당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여주옵소서, 오 하느님 아버지 이시여" 그리고는 일제히 일어나서 힘차게 일러로 향했다. 이들은 다 무너져가는 빈민굴을 청소하

여 그곳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사람답게 살수있는 터전으로 바꾸려는 것이였다. 이러한 광경은 어디서나 볼수있다. 몇몇 젊은이들이 우범 청소년 선도센터로 일하러가기 앞서 한자리에 모여 기도드리느 모습도 볼수있고, 사회사업단체가 먼저 기도를 드린뒤, 스감자 교화 사업또는 불우여성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에 헌신하러 가는 모습도 볼수있다. 휴스턴의 예수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집없는사람, 심신장애자, 외딴사람의해 일일이 기도한다. 기도가 끝나면 목사에게 칭한다. "자살하러했던 그 소녀는 제가 집으로 데리고가 얼마동안 같이 살것입니다." 혹은 "경찰에 붙들렸던 그 소년은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가? 그냥 행동하면 되는게 아니냐? 이에 대한 대답에 앞서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는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겁이 많고, 또한 연약하다는 사실이다. 기도는 인간에게 행동할 힘은 주고 용기를 준다. 비록 행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해도 인간은 애도예찬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와같이 계시다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강화해주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워준다.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성숙된사회를 건설할수있는 힘과 지혜를 준다.

그래서 일찍이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느님을 변화시키지 않으나,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했다.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SERVICE (GAS) STATION**

23845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SHINGTON 98031  
TEL: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미드웨이  
야외극장  
스팸 및  
건너편

**\*\* 자동차 정비 일체**

\* Tune-Up \* Brake \* Electric \* Engine Overhall

**\*\* TIRES \*\* BATTERIES**

**\*\* 도요다 닌스 혼다 등 외국차 전문**

• 2월 부터 새로운 Service로 시작한 저희 Station을  
영광히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성실 및, 풍부한 경험의 기술진으로 책임수리 하고 있습니다.

**김 명 환**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 DO YOU NEED A LAWYER?

6인 합동 법률 사무소

전문 변호사 안내

로날드 G. 브라운  
律 師

**ESTEP & LI**  
ATTORNEYS AT LAW  
2110 Exchange Building  
2nd and Marion  
Seattle, WA 98104

Office: 682-0565  
Home: 821-4465  
공 역 있음

### ● 한인회 논단 ●



땅에 떨어진 밀알

글 김 상 구 목사

(씨애를 한인 장로교회)

한국에 있는 동생의 식구가 미국에 있는 형님에게 이민초청을 부탁했다.

그래서 형은 한국에서 안정되게 사는 동생에게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을것을 말했고 미국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할 만큼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의 동생은 형님이 자기를 초청해 주기 싫어서 이런말을 써 보낸것이라고 완망을 했고 더욱더 이민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형은 그 동생의 가정을 초청해 주었고 그 동생은 결국 이민을 왔다.

그리고 이 동생의 가정은 이민집을 끌고 지금 6개월째를 산다. 남편은 4볼짜리 밤일을 하고 그아내는 아직도 직장을 못구한채로 산다. 아직 이민생활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가정이다. 이들의 얼굴엔 기쁨이 사라졌고 가정에도 평화가 없다.

한국에서 친구들과 어울렸던 멋도 이웃간의 따뜻한정도 다 잃었다. 이부인은 왜 미국에 왔는 가고 한식을 하며 샤워를 틀어 놓고 하루에도 몇번씩을 엉엉은다.

어린것들이 미국아이한테 맞고들어와도 할말이없고 그렇게도 똑똑하던 남편이 무능한 남편으로 전락을하고 자신은 갈곳을 맘대로 못가는 병신이 된것같고.....

그래서 부인은 날마다 운다. 이 이야기는 우리주위에 너무도 흔히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안정된 한국인

들의 옛날 이야기이고 미래를 향해 발버둥치는 새 이민은 한국인들의 오늘의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명심해야 할일은 미국은 우리가 선택해서온 나라라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을때 미국에 대해 바로 생각했든지 잘못생각했든지 어쨌든 이 나라는 내가 원해서 온 나라다. 여기에 우리가 이땅의 조그만불행을 참고 견뎌야할 이유가 있다

조그만행복과 조그만 불행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우리가 미국땅에서 맛는 괴로움이 더커보이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



시간 염수

철수: "내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건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아버지 정말 철저했어. 죽는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  
영식: "놀랍구나! 병으로 돌아가셨어?"  
철수: "사형수였어"

과 아픔을 해결하고 풀기가 한국보다 더 어려운 때문이다. 그러나 이땅을 개척한 미국의 조상들의 아픔과 괴로움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었다. 요즘, 신문 자상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사업장에서 괴한들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슬픈소식을 듣는다. 유독 우리들만 당하는 것 같아 피가 솟아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또도러켜 생각하면 미국인들이 이 서부를 개척할때 저들은 인디안과 그리고 도적들의 계속된 습격, 병고와 험난한 자연의 도전 거기에 금주법의 어려움까지 겹치는 가운데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어도 그래도 그들은 개척의 걸음을 멈추질 않았다. 그들은 아내의 무덤앞에 혹은 남편의 무덤앞에 돌한개나 들꽃 한송이를 던져 놓고 서부로 서부로 발길을 옮겨 오늘의 이땅을 이렇게 가꿔 놓았다.

새역사 창조엔 늘 이런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들의 이민생활은 바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한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주위에 있는 여러가지 아픔과 괴로움은 새역사 창조의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로 이것에 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역사는 개척의 역사요 서부의 역사는 용기의 역사이다.

인간의 용기와 뜻은 작은 것 같아도 새 역사를 만든다. 이제 우리도 어떤 고난을 만

나도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새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먼 훗날 이땅에 뿌리박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더 귀한 전통, 더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아픔을 참고 이기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한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우리모두 땅에 떨어진 밀알로 내일을 바라보며 웃으며 살아야 한다.

끝.



● 젊은이에게 ....

( 우리들은 누구인가? )

글 : 박 용 목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채 그누구도 인간의 근접을 허용치 않았던 계곡에 심오한 자연의 섭리를 일깨워 주듯 낙엽이 사이고 솔잎이 떨어지고 먼지가 덩치고 눈이 내리고 빗물에 씻기어 미래의 창조에 대한 부식과 함께 흘러들어 남은 그곳에 이름모를 산새와 짐승들만이 섞여 갈으리 ....

그곳으로 달려 가고싶다. 불신하는 자들에게 남을 해치고 자음모와 강탈의 잔을 들이키는 무리들에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자 부하고 강하고 자만 하는 이들에게 허무와 허공만이 가득한곳에서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이며 패배인가를 묻고싶노라고 소리치고 싶다. 그래서 현실팍처럼 저버리는 인간들이 산의와 버리지 않는 자연의 깊은 위치를 알게하고싶다.

결국 인간은 모진 세파와 갈등으로 인하여 한점의 흠으로 미세한 본말과도 같이 흩어져 남을것을 . . . .

" 우리들은 누구인가? "

소위 어렵던 시절 사각모쓰고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많은 현해탄과 광활한 대륙을 넘나들던 때의 우리인가? 아니면 민족상쟁의 비극인 6.25로 췌 대신 총을 들고 값진 목숨을 바치던 때의 우리인가? 독재에 항거한 4.19때의 우리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실재하고 있는 오늘날은 어떠한 때인가? 너 자신을 알아라! 어울리는 구절이라 생각된다. " 우리는 누구인가? " 조용히 반문해보자 애매모호한 대답은 결코 있을수 없다.

젊은 식견이지만, 무조건적 비판과 불평하는 자보다는 선구자적인 압목을 갖고 현실에참여하는 현명한 자가되고 젊음의 패기로 멋있게 생활을 꾸며서 음추렸던 나태를 활짝펴 푸른 창공을 향해 힘껏

날자. 그리고 양복대신 허름한 옷차림에 멋을알고 양주대신 소주한잔 막걸리 한잔에 정겨움을 더 느끼며 구수한 된장찌개 맛을 느낄수있는 촌부의 자식이되자.

촌스럽다고 이야기 들어도 좋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아도 좋다.

확고한 주관만 갖는다면 그러나 한번쯤 영하의 전선에서 혹독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와 싸움하여 부모형제와 조국을 지키는 자부심을 가져보지않고서는 우리 애국심이 무엇인가는 접어두기로하자.

끝으로 이사회라는 공동체는 결코한 개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하게하는 자는 용서 받을수 없음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는 승리대로 알아야 할것이다.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자. " 우리는 누구인가? " 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

~~~~~ 끝.

공공



이웃집 부인네와 함께 집에서 가운 파랑콩을 따서 강릉에 넣어 통조림을 만들면서 "이런다고 정말 돈이 절약될까요?" 했다. "아, 그럼요. 절약되고말고요.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소빙갈 수도 있잖아요!" -E.S.

어느 식당엔 들어갔더니 그럴 듯한 요리 이름들이 즉 나열된 메뉴가 있었고 모든 요리에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바닷가재 요리. 거기엔 가격 대신 "셰이프리스에게 문의하십시오"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분명히 그렇게 해본 손님이 써 놓은 듯 "안 물어 보시는 게 좋을겁니다"라고 연필로 적혀 있고. -P.M.

# 희인회분단

언니의 책읽기

글·유정

어둠을 밝히고 하루의 피곤을 풀어 살때  
에 우리는 오직 배우겠다는 의지로 피곤  
함도 졸음도 잊은 채 야학에 나가는 늙은  
중학생들이다.

어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남앞에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나 읽고 싶어  
어도 읽을 기획이 없었던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하셨다. 그러자 한참동안 잠  
잠 하더니 딱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나는 그 손 든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깜  
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말할때면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양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언니였  
다. 선생님께서는 서슴치 않고 그 언니에  
게 책을 읽게 하셨다.

그 언니가 한참동안 더듬거리며 책을 읽  
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쿵" 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교실안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언니를 바  
라보았다. 그러나 그 언니는 당황하지 않  
고 계속 책을 읽어 나갔다.

그러더니 그 언니의 책읽는 소리는 울음석  
인 음성으로 변해갔다.

그러면서도 언니는 끝까지 또박또박 책읽  
기를 그치지 않았다. 울음섞인 목소리로  
글자 한자한자를 읽어려는 언니의 모습을  
보는 나는 가슴이 무척 아팠다.

처음엔 나도 교실안에 웃음바다가 될때  
그만 웃어 버렸기 때문이다.

남의 어려움이나 슬픔을 위로하지는 못  
할망정 비웃고 있는 체 지나치는 사람은 죽  
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은 지금 순간적으로 죽어있어요

나는 그날 언니의 책읽기가 끝나자 국어  
선생님께서 하신말씀을 늘 잊지않고 지낸다



940 마루에 부는 바람

이 재욱

바람이 날은 세우고 쳐들어 와요

이름도 없이 높은 산

940 마루에

청룡도 검광이 번쩍 거려요

녹슨 포연이 실려와서

음모와 약탈과 방화와 유혈의 현장을  
굴짜기 마다 일깨우곤 달아나요

길길이 쌓인 눈속에서

참호속에서 비상로에서 초소막에서

눈보라치고 눈보라속에서

산화한 젊음이 바람을 맞아

울부짖고 있어요

살아 남은 자여 쓰러비를 들고 심란한

오늘의 추억을 풀어 내요

헐벗은 가지위의 겨우살이여

병사여



베스트 셀러

점원: 『어서 오세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손님: (진지한 표정으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베스트 셀러 한권 주  
세요』



WE CAN DO ALL THESE  
AND MORE ...

- Advertising Flyers
- Annual Reports
- Brochures
- Bulletins
- Business Forms
- Calendars
- Catalogs
- Color Printing
- Envelopes
- Form Letters
- Labels
- Letterheads
- Manuals
- NCR Forms
- Newsletters
- Photo Copying
- Price Lists
- Resumes

The Instant Printing  
Professionals™  
your  
**FULL SERVICE PRINTERS**

423 Stewart,  
Seattle, WA 90101  
(206)621-9355

OVER 350 LOCATIONS NATIONWIDE  
© Copyright 1981 SIR SPEEDY, INC.



시골길 버스

이 석 군

덜컹덜컹 비껴비껴한

시골길 버스안

오랜만에 만난 사람 흥겨운 자리

당신네 농사 잘되었소?

당신네는 어때요?

당신네 딸 시집보내겠소?

올농사 망쳐 다 들렸소

이 달은 왜 달이오?

휴가온 들췌놈

고아 먹이려고 하나 샀소

시골길 버스안

다방되고 술집되는 따뜻한 아랫목



고향

전 구 영

그리운 고향

그곳은 언제나 열길 꿈속이었네.

푸른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내민 고목

옛장수 할아버지 가윗소리는

싱그런 아카시아 숲에서 들렸네

계구장이 아이들

퐁뽕퐁뽕 송사리 떼를 쫓았고

건너편 개울가의 황소는

하늘 향해 느린 하품처럼 울었네

그리운 고향

그곳은 언제나 열길 꿈속이었네.

● 원고 모집

소설 ( 단, 장편 )

수필

생활수기 ( 이민생활의 체험담 )

시

시조

희곡 및 시나리오

이상의 부분에 투고하여 주시면 본지 게재 및 조정의 원고료를 지급 할 예정입니다. ( 보내실곳 )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한인회 소식 투고 환영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미담 (불우 이웃 돕기)이나 교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본 한인회 편집부로 투고해 주시면 본지 한인회 소식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 특히 이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아이디어 및 정보, 교양에 관한 사항을 정착하는 여러 교민들을 위해 투고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씨애틀 - 와싱턴주 거주교민 주소록 작성

교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져 82년, 83년도

교민 주소록을 제작성할 예정이오니 한분도

도 빠짐없이 자신의 주소를 기입 한인회로

보내주시기 앙망 합니다.

보내실곳)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한인회보 광고 안내

매일 2,000부로 씨애틀 와싱턴주 거주교민들에게 배부되는 한인회보지는 바로 교민 자신들의 회보지이며 이국 생활에서의 교민들의 동정을 알려주는 눈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봉사단체인 한인회의 광고비로만 충당되는 한인회보는 여러분의 적극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교민이 구독하는 이 회보지를 통한 광고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인 참여도 되고 경영하시는 사업을 위한 최대의 광고 효과도 얻고, 우리의 옛 속담처럼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시간에 연락주시면 바로 교민사화에 봉사하는 그 결정이 거룩한 행동이 되심이라 단언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들은 25시 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편집후기

어려움과 아쉬움을 남기면서 시작된 작업은 고민들 모두가 조금씩들만 해소해 주신다면, 우리의 한인회보는 보다 알차게 역, 어져 유익한 우리의 눈이 되리라 생각하며 바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나라는 기대감처럼 다음호는 고민모두가 참여하는 좀더 알찬 우리의 회보지가 되리라 기대하여봅니다.

한인회보

1982년 3월호 통권 제 호

비매품

발행인 : 엄명보

편집인 : 박용목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 ( 206 ) 682 - 4252

# 교포사회 최초최대의 종합잡지

## 월간 코메리칸

### 본지의 3대 지표

1. 재미동포의 대화의 광장
2. 재미동포의 생활의 길잡이
3. 고국동포와의 사랑의 가교

유인섭 (IN SUP YU)

Tel : (206) 625-1464, (206) 885-6400

Address : 15905 NE 98th ST.

Redmond, W.A. 98052

본지에 광고를 내시려면

■본지의 광고계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 서신 혹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자인, 사진등 모든 편집에 응합니다.

■본지는 미국내 교포잡지로써 처음발행되는 유일한 종합잡지이며 최고의 페이지로 독자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광고목적에 본지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에는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 구독신청서

|                   |                   |
|-------------------|-------------------|
| Name              |                   |
| _____             |                   |
| Add               | Apt               |
| _____             | _____             |
| City              | State Zip         |
| _____             | _____             |
| Phone             |                   |
| _____             |                   |
| ☐ 3MONTHS \$13.00 | ☐ 6MONTHS \$25.00 |
| ☐ 1YEAR \$47.00   |                   |

①참하시는 구독 해당함에 V 표를 해주십시오

# 사보이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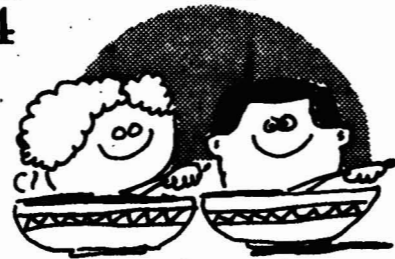
☎622-7424

선지해장국전문

한국진미가 나는 순대국 및 순대

카텔라우지

시간 아침11시 ~ 새벽2시  
금, 토 새벽4시까지  
(일요일 휴무)



※웨이트레스 구함

# 보혜사 한방원

保惠師 漢方院

●보약 ●녹용 ●우황청심환 ●첩약

-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원
- 대한침구사 협회장 표창장 수령
- 미국가주 침술사 면허소지

영업시간 : 당분간 평일은 오후5시~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9시~오후9시

762-8566 762-6493

8107-22nd Ave. S.W.  
Seattle 98108

# 치질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희소식!!

수십년된 치질도 아프지 않게 치료됩니다.

전화예약 바랍니다.

보혜사 한방원 최창하  
762-8566 762-6493

### 한의학박사 윤성희

경희 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Bernadian University 보건 대학원수료 ph.D.경력  
동서의원 개설(서울종로구 신문로 17가72)  
West Coast Medical Group원 자문의사(L.A.)  
Nevada 주 한의사 면허(미국에서 처음 한의사시험)취득  
대한 한의사협회 연구개발상 수상  
대한 한의사협회 공로상 수상  
색맹 치료의 침의학적 통계발표(제5차 전국 한의학술 대회)  
(2차 발표 1,500명 통계)  
수, 도, 함 치료법(저서)

침과 한약이라면

동서한의원으로!

# 동서한의원

(206) 581-3393, 952-4064

오래된 만성병은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각종 보약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 아침9시 ~ 저녁6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4102 110TH ST S.W. TACOMA <퀸빌 건너편>

계리사  
이 주 영

전화  
623-4181

〈취급업무〉

중소기업 장부정리  
일반 인컴 택스  
각종 세무 상담  
은행 용자 알선

공증 업무 취급  
사업 상담  
퇴직 연금 상담  
기밀 절대 보장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MAN SOP HAHN  
12904 S.E. 45th LN.  
BELLEVUE, WA. 98006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since 1967*